

1. 예후 나쁜 간암...4 명 중 1 명만 수술 가능 [생활속 건강 톡 '메디神']

입력 : 2022.08.21 17:15:45 수정 : 2022.08.21 20:4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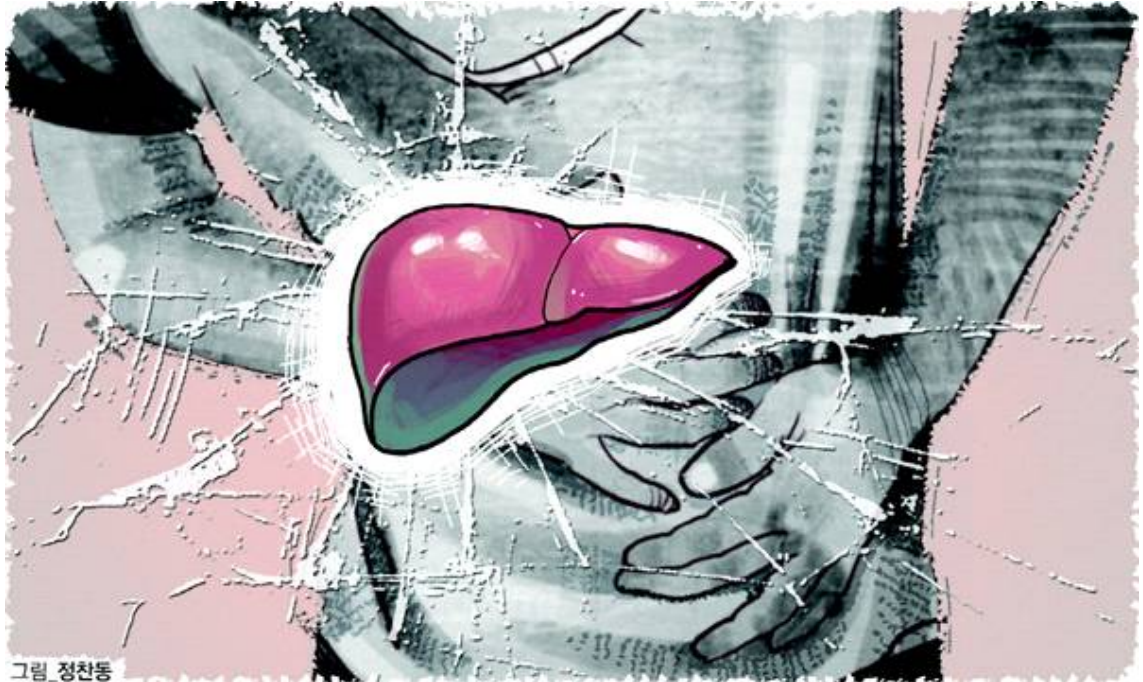


그림 정찬동

#50 대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검진에서 간 효소치가 증가하고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잦은 모임과 술자리로 체중이 늘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던 김씨는 지방간이 간염·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간암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식단 개선, 체중 감량, 금주에 들어갔다.

간암을 이해할 때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간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암은 B 형 간염, C 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등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는 만성 B 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이 특히 많다.

간암은 국내 전체 암종 발생 6 위(2018 년 기준)지만 암종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는 2 위를 차지한다. 간암의 5 년 생존율은 1990 년대 초반 11%에서 최근 37%까지 증가했지만, 다른 암종에 비하면 여전히 장기 생존율이 낮다. 5 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할 위험이 있으며, 10 년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예후가 불량하다. 동반된 기저 간질환이 악화돼 간암이 재발하거나 심각한 간 기능 소실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간암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기존 간질환 증상과 혼동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일부 환자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 상복부에 통증이 있고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며 기존 간질환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피로,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미 간암이 진행돼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6개월 간격으로 간암 표지자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게 된다. 영상검사로 진단하기가 애매하거나 미확정 결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 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간암 치료 시에는 간 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동반된 간질환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암 진행 정도와 환자의 간 기능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한다. 간암의 치료법으로는 △간 절제술 및 간 이식을 포함하는 수술적 치료법 △고주파 치료, 간동맥 색전술, 방사선 치료, 항암표적면역억제물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다.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각 센터에서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분야별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의 전신 상태, 간 기능, 암 진행 정도 등에 따른 맞춤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간암 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간암을 포함한 주변 간조직을 도려내는 간 절제술이다. 과거의 간 절제술은 개복 수술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종양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해 복강경 또는 로봇 간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미용적인 측면과 수술 후 조기 회복 등은 개선됐지만 로봇 간절제술은 아직까지 증례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간 절제술은 이론적으로나 성적 면에서 좋은 치료법이지만 실제 간암 환자 4명 중 1명만 수술이 가능하다. 간은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이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간을 너무 많이 잘라 내면 간부전 상태가 될 수 있다. 간질환을 동반한 간암 환자의 간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간을 조금만 잘라 내도 생명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간 기능이 나쁘거나 종양 개수가 많으면 간 이식이 고려된다. 특히 간경변으로 인해 복수, 위·식도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간 이식이 적극 추천된다. 하지만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고, 간암이 주요 혈관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종양의 크기와 개수가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간 이식이 가능하다. 이때 간 이식은 다른 치료법보다 생존율이 높고, 간암 재발률은 낮다. 다만 간을 줄 공여자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 부담이 되며 간 이식을 받으면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신생아와 감염될 위험이 있는 소아·성인이 B 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정동환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외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 예후 나쁜 간암...4명 중 1명만 수술 가능 [생활속 건강 톡 '메디神']

입력 : 2022.08.21 17:15:45 수정 : 2022.08.21 20:42:44



0





그림 정찬동

#5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검진에서 간 효소치가 증가하고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잦은 모임과 술자리로 체중이 늘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던 김씨는 지방간이 간염·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으며 간암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식단 개선, 체중 감량, 금주에 들어갔다.

간암을 이해할 때 '간암 환자의 대부분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증과 같은 간질환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암은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등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는 만성 B 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염이 특히 많다.

간암은 국내 전체 암종 발생 6 위(2018 년 기준)지만 암종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에서는 2 위를 차지한다. 간암의 5 년 생존율은 1990 년대 초반 11%에서 최근 37%까지 증가했지만, 다른 암종에 비하면 여전히 장기 생존율이 낮다. 5 년이 지난 후에도 재발할 위험이 있으며, 10 년 생존율은 20% 미만으로 예후가 불량하다. 동반된 기저 간질환이 악화돼 간암이 재발하거나 심각한 간 기능 소실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

간암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있더라도 기존 간질환 증상과 혼동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일부 환자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 상복부에 통증이 있고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며 기존 간질환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피로,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미 간암이 진행돼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6 개월 간격으로 간암 표지자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게 된다. 영상검사로 진단하기가 애매하거나 미확정 결절인 경우에는 6 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 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간암 치료 시에는 간 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동반된 간질환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암 진행 정도와 환자의 간 기능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한다. 간암의 치료법으로는 △간 절제술 및 간 이식을 포함하는 수술적 치료법 △고주파 치료, 간동맥 색전술, 방사선 치료, 항암표적면역억제물치료 등 비수술적 치료법이 있다.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각 센터에서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분야별 전문의들이 모여 환자의 전신 상태, 간 기능, 암 진행 정도 등에 따른 맞춤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간암 치료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간암을 포함한 주변 간조직을 도려내는 간 절제술이다. 과거의 간 절제술은 개복 수술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종양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해 복강경 또는 로봇 간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 미용적인 측면과

수술 후 조기 회복 등은 개선됐지만 로봇 간절제술은 아직까지 증례가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간 절제술은 이론적으로나 성적 면에서 좋은 치료법이지만 실제 간암 환자 4명 중 1명만 수술이 가능하다. 간은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이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간을 너무 많이 잘라 내면 간부전 상태가 될 수 있다. 간질환을 동반한 간암 환자의 간 기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간을 조금만 잘라 내도 생명 유지가 어렵다.

따라서 간 기능이 나쁘거나 종양 개수가 많으면 간 이식이 고려된다. 특히 간경변으로 인해 복수 위·식도 정맥류 출혈, 간성혼수 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간 이식이 적극 추천된다. 하지만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고 간암이 주요 혈관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종양의 크기와 개수가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 간 이식이 가능하다. 이때 간 이식은 다른 치료법보다 생존율이 높고, 간암 재발률은 낮다. 다만 간을 줄 공여자가 있어야 하고 경제적 부담이 되며 간 이식을 받으면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신생아와 감염될 위험이 있는 소아·성인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정동환 서울아산병원 간담도외과 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